

지역 소식통

위기가정 아동 지원 강화  
아동복지기관협의회 회의

완주군이 위기가정 아동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이날 위기가정 아동의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2024년 제2차 아동복지기관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완주군드림스타트의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완주교육지원청,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봉동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사례아동 가정 상황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 방향 설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의 효과적인 서비스 공동 개입을 위한 역할 분담과 조정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가정 내 방임 등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노인일자리 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관내 경로당 631개소의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로당 운영·관리 및 노인일자리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투명한 경로당 운영 및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한 교육은 실제 사례 위주 교육으로 어르신들의 궁금증 해소 및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사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 유형, 수행기관, 활동비 지급 기준 등 정확한 정보와 안내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노인회장은 "이번 교육으로 경로당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 혁신 리더십 '주목'

##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유희태 완주군수의 혁신 리더십이 또다시 주목받았다. 27일 행정안전부 '2023 지자체 정부혁신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평가가 시작된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우수기관을 놓치지 않아

명실상부 정부혁신 선도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특히,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의 리더십, 주민소통 정책 성과, 민관협력 활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혁신적인 행정 운영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군수는 귀농귀촌 활성화, 전주시·우석대·전북현대 등 타 기관과

의 상생협력 사업 추진,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 운영, 아동 인권 개선사업 추진 등 행정 전반에서 뛰어난 혁신 성과를 이뤄냈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는 정부혁신 평가는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주민 소통, 민관협력 등 10개 지표를 합산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완주군은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자율혁신 추진성과, 주민소통, 민관협력 활성, 조직문화 개선 등 7개 부문에서 우수를 달성했다. 행정부는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표창과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고, 타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혁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직원 모두가 선죽제인(先則制人)의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완주군은 사회적기치 구현, 참여·협력, 신뢰받는 군정을 이르기 위해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및 자율적·상향식 혁신을 강화해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27일 완주군은 행정안전부 '2023 지자체 정부혁신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유희태 완주군수. (사진=완주군청 제공)



김제시는 지난 26일 2024년 민생경제협의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김제, 민생경제협의체 첫 정기회의

## 시민 채널로 정책 소통 본격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6일 2024년 민생경제협의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3년 협의체가 정책 제안한 △귀농귀촌 원스톱 교육 시설 구축, △위경맘 도시락 지원사업, △청년사업가 수의계약 우선 추진, △김제시 밥상뉴스 제작 등 5개 사업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와 2024년 협의체 운영계획 및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제안사업 심층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재원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진입 문턱은 낮아지고, 민생발전은 한 단계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제시의 민생활력 기반 마련에 협의체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체는 시의원, 시민,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로 지난해 7월 발족했으며, 5개의 분과(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 교육문화, 지역상생)별 회의와 정기회의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제안과 토론회를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안전개발국, 시 공공디자인 업무연찬 추진

## 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 한 뜻

김제시(시장 정성주) 안전개발국은 지난 26일부터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 팀장,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영석 국장 주재로 시 공공디자인 업무연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제시민이 주체가 되어 인격을 더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라는 비전 아래 수립된 '2023 김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부서별 업무연찬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정체성과

미래방향성을 공유했다. 또 향후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물 설치,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조성 등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은 물론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지역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시 공공디자인 전략적 추진에 그 뜻을 함께 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은 "경쟁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김제시민의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인 인식 확립 및 적용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김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의거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생활안전, 안전을 더하여, △모든이를 위한, 배려를 더하여, △생활편의, 편리를 더하여, △생활활력, 품격을 더하여, △기초가 튼튼한, 관심을 더하여'라는 5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되어 체계적인 도시 경관 구축과 공공디자인 미래상 구현이 가능해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실종위험 치매환자 소형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소형 배회감지기(스마트태그)'를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보급되는 배회감지기는 실종 경향이 있거나,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배회감지기(스마트태그)는 치매환자의 소지품이나 옷 등에 부착하고, 가족 등 보호자가 모바일 전용 앱에 기기를 등록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태그는 소지가 간편하고 고리 형태로 걸어서 사용하여 분실 위험이 적고 건전지 교체 시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경아 치매재활과장은 "치매환자 실

종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 외에도 실종 예방 인식포 발급, 지문 사진 등록 등 다양한 실종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 응벽·석축, 급경사지, 저수지, 공사장 등

완주군이 해빙기 위험시설 집중점검으로 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군은 해빙기인 2월부터 4월까지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아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3월 말까지 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 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포함해 관내 총 166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탈면 균열 △시설물 주변 지반 침하 여부 △구조물 변형 여부 등으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사항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필요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설은 응급조치(사용금지, 통제) 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삼례역과 버스터미널(삼례, 고산, 대둔산)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사전점검을 마쳤고, 내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부서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송국 과장 최소화를 위한 이동 유도선 설치 여부, 승하차시 안전요원 배치, 이동경로(피난) 표시, 엘리베이터, 플랫폼, 선로 등의 안전관리가 대상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취약시설의 홍보,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철저한 점검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